

사랑의 비밀

작성일 : 2010년 1월 29일 (금)

작성자 : 김은진 (대구 스타 교회)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기도회 중 주님께 사랑 고백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드리고 싶다고, 회개와 사랑을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던 중 받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별아.

오늘도 나는 너의 마음의 문에 사랑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설레며 마음의 노크를 한다.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느냐?

(감사함, 사랑함, 기쁨으로 그리고 긴장함으로 문을 열어요.)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기에 전쟁 시 같은 편끼리는 그들만이 아는 신호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듯 너와 나의 사랑으로

우리 둘만의 사랑의 열쇠 가지고 그 사랑의 신호가지고

오늘도 나는 너의 마음의 문에,

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내 마음 전하여 본다.

기도는 내가 너에게 너의 선한 마음에
다가 갈수 있게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구나.
내게 기도하고 내게 말하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와 하나 되자.
나에게 너의 모든 것 고하는 시간,
나에게 너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나에게 너의 모든 마음 표현하는 시간,
나와 너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 주는 시간.
그 시간은 너와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면 헤어짐이 아쉽고
사랑하면 같이 있는 그 시간
세상의 어떠한 부유한 자보다, 권력 있는 자보다,
위인보다도 가장 행복한자가 되는 것이지!
알겠니?
그러니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나에게 기도하는 시
간
그때 그 사랑의 정점에 달하여 표적, 기적을 볼 것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비밀을 말하겠노라.
사랑은 모든 악한 것을 소멸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빛이 있으
라 하시매…….

그것은 에너지원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 말했지?
그처럼 그 에너지원은 중력, 만류인력도 아닌
오직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이다.

사랑은 그저 반 개짜리인 염색체를 만나게 하여
그것을 결합시켜 생명을 낳게 하는 크고도 큰 원천이다.

사랑은 어떠한 것도 다 사해줄 만큼
모든 것 깨끗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핵이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사랑이다.

잘 보아라.
가장 쉬운 예로 중력을 들어보자.
너희 가운데 중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서
붙어 있지 않느냐?
그처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붙어있고,
삶을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전력을 보자.
태양 주위를 많은 갖가지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지?
그와 같이 사랑하니 그 주위를 뱅글 뱅글 도며
그 곁에 머물러 그와 함께 하고픈 사랑의 힘인 것이다.

그러니 모든 에너지원의 근본은 사랑이다.
그러니 나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온 천지를 사랑으로 만들었다 함이 이러한 것이다.
사랑을 근본으로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사랑의 존재인 것이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주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 빼앗기면 그 힘잃어
힘이 약해지고 그 뜻 깨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사랑을 빼앗기지 말지어다!

사랑에 도전 하는 자 되어라.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 너희 개인의 사랑에 있어서는
가장 무섭고도 무서운 자가되어 귀히 그 사랑을 지켜라.
절대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라.

온전히 사랑의 역사, 사랑의 삶,
나와 함께 하는 삶 나아가자.
만물끼리의 사랑, 사람끼리의 사랑에도 위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너희와 나의 사랑이 이루어져
그 역사 펴 나간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깨달아라.

나와 기도로 사랑을 나누고
나와 정신적, 영적 교감으로 나와 일체되자.
사랑한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진정 모든 것 이루어보자꾸나.
늘 나와 일체 되기에 힘쓸지니라.

너희의 모든 힘의 근원 나 주 예수 그리스도.